

지소연 있을 때 올림픽 나가야할 여자축구

사상 첫 본선 진출 도전...1991년생 지소연 어느덧 29세
북한 불참해 절호의 기회...9일 베트남과 조별리그 2차전



여자축구대표팀 지소연이 3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20 도쿄올림픽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미얀마와의 경기에서 드리블을 하고 있다.

지난 1월 태국에서 열린 2020 도쿄올림픽 예선을 통과, 3회 연속 올림픽 본선 무대를 밟게 된 여자배구계에는 '김연경이 있을 때 메달을 노려야한다'는 인식이 암묵적으로 깔려 있다. 이재영, 이다영, 김희진, 양효진 강소희 등 후배들이 급성장하며 전체적인 팀 전력이 크게 상승했으나 그래도 '세계적인 수준'에 있는 에이츠의 존재 유무는 큰 차이다. 지켜보는 이들보다 간절히 사람은 당연히 김연경이다. 어느덧 32세가 된 김연경은 도쿄행 티켓을 따낸 뒤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도쿄올림픽만 기다려왔다. 마지막 도전을 할 기회가 마련돼 기쁘다"면서 "후배들이 많이 성장했다는 것을 또 느끼

고 있다. 예감도 좋고 욕심도 많이 난다"는 말로 도전 의지를 밝혔다. 여자배구는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 동메달 이후 44년 만에 다시 메달을 노린다. 김연경과 함께 2012 런던 올림픽 4위, 2016 리우 올림픽 8강 등 아쉽고도 좋은 성적을 거둔 여자배구대표팀으로서 '여제'와 함께 하는 마지막 대회를 놓칠 수 없다. 그래도 여자배구는 본선이라도 꼬박꼬박 나간다. 여자축구는 더 간절하다. 남자축구가 9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에 성공한 것과 달리 여자축구는 지금까지 단 1번도 올림픽 무대에 오른 적이 없다. 올림픽 본선에 나서지 못할 수준은 아니

나 북한, 일본, 중국 등 여자축구계 강호들이 아시아에 포진한 까닭에 예선에서 늘 고배를 마셨다. 2020년 도쿄올림픽 예선도 쉽지는 않은 길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래도 큰 돌부리가 하나 제거됐다. 북한이 참가하지 않는다. 절호의 기회다. 어쩌면 '지메시' 지소연(29·첼시)과 함께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더욱 놓칠 수 없는 찬스다. 사상 처음으로 올림픽 본선 진출에 도전하는 한국 여자축구가 아시아 예선 조별리그 첫 경기를 신듯한 승리로 마무리했다. 폴린 벨 감독이 이끄는 여자축구대표팀은 지난 3일 오후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20 도쿄올림픽 여자축구 아시아 최종예선' 조별리그 A조 1차전에서 미얀마를 7-0으로 완파했다. 객관적인 전력에서 한국의 우위가 예상됐던 경기다. 한국 여자축구의 FIFA 랭킹은 20위이고 미얀마는 44위. 까다로운 팀은 아니었으나 그래도 첫 경기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고전할 수도 있었는데 내용도 결과도 모두 만족스러웠다. 수훈감은 단연 지소연이었다. 지난해 12월 동아시아컵에 참가하지 않아 폴린 벨 감독 체제 하에서는 첫 부름을 받은 지소연은, 오랜 기간 벨 감독의 애제자였던 것처럼 핵심 퍼즐 역할을 톡톡히 했다. 지소연은 전반 5분 만에 넣은 PK 선제골을 시작으로 2골2도움을 기록, 대승의 견인차가 됐다. 가시적인 공격포인트가 아니더라도 지소연은 소위 '레벨이 다른' 플레이를 경기 내내 펼쳤다. 2명의 전방 공격수 아래서 사실상 '프리롤' 역할을 맡은 지소연은 중앙과 측면, 1선과 2선을 자유롭게 오가면서 공격의 단초이자 연결고리이자 마침표까지 1인 다역을 소화했다. 미얀마의 수비력이 그리 강하지 않아 냉정한 평가는 어렵지만, 차이는 확실히 느껴졌다.

지소연을 앞세운 여자대표팀은 오는 9일 베트남과 같은 장소에서 두 번째 경기를 갖는다. 이 경기만 승리하면 한국은 A조 1위로 플레이오프에 진출한다. 애초 한국은 북한, 미얀마, 베트남 등 3팀과 함께 조별리그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북한이 불참을 결정함에 따라 미얀마, 베트남하고만 조별리그를 치른다. 호재다. 하지만 A조 1위가 본선을 보장하진 않는다. 예선은 B조에서도 진행되고 있으며 A조 1위와 B조 2위, A조 2위와 B조 1위의 홈&아웨이 PO에서 승리한 2팀만 본선에 오를 수 있다. B조는 호주와 중국의 진출이 유력한데, 결국 한국의 첫 올림픽 진출 여부는 PO에서 판가름 될 예정이다. 그래도 북한이 나서지 않아 1위로 PO에 올 수 있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아무래도 호주보다는 중국이 해볼 만하다. 하늘이 돕는다(북한 불참)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는 또 다른 이유는 지소연 때문이다. 1991년생인 지소연은 어느덧 29세가 됐다. 워낙 동안이라 인식하지 못할 뿐 손흥민(28)보다 누나이고 서른 줄을 훌쩍 넘어서는 차기 올림픽은 출전을 보장하기 힘들고, 나서더라도 아무래도 힘이 떨어졌을 때다. 전성기인 지금이 절호의 찬스다. 한국 스포츠계가 보유하고 있는 '월드스타' 중 하나인 지소연인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올림픽에 꼭 나가고 싶다"는 뜻을 번번이 밝혀왔다. 여자축구 사상 첫 외국인 지도자가 부임하며 전체적으로 '한 번 해보자'는 기운이 강하다. 여자축구는 숙원을 풀 수 있을까. 적어도 지소연은 김연경 이상으로 간절하다.



뉴스1

최준용 · 김선형 · 허웅...프로농구에 내려진 '부상 경계령'

외국인 선수 KGC 맥컬러 · 모비스 오카포도 부상



2일 오후 전북 전주시 전주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19-2020 프로농구 KBL 전주KCC와 서울SK의 경기에서 서울SK 최준용이 부상을 당해 들것에 실려 나가고 있다.

프로농구에 '부상 경계령'이 내려졌다. 선두 경쟁을 벌이고 있는 서울 SK는 비상 상황을 맞았다. 주축 선수 최준용이 지난 2일 전주 KCC전에서 무릎 인대가 파열되는 큰 부상을 입은 것. 복귀까지는 8주 이상이 소요될 전망이다. 최준용과 함께 김선형도 손등 골절로 4주간 결장이 예상된다. 여기에 안영준까지 어깨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라 한꺼번에 주전 3명이 전력에서 이탈하게 됐다. SK 관계자는 "김선형의 공백은 기간도 짧고 전태훈, 반기훈 등으로 메워볼 수 있지만 최준용의 부상이 걱정"이라며 "최준용은 남은 정규시즌 출전이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프로농구 사상 최초로 4라운드 전승(9승) 기록을 세운 원주 DB 역시 허웅의 발목 부상으로 올상이다. 2일 안양 KGC전에서 슈팅 후 착지하다 발목을 다친 허웅은 이번주 2경기에 결장할 예정이다.

외국인 선수들의 부상도 눈에 띈다. KGC는 주력 외국인 크리스 맥컬러가 무릎 부상으로 이탈해 덴젤 보울스를 급히 영입했다. 그러나 또 다른 외국인 브랜드 브라운이 2일 DB전에서 발목을 다쳤다. 다행히 브라운의 부상은 심각하지 않은 상태다. 울산 현대모비스의 'NBA 신인왕' 출신 에메카 오카포도 최준용과 비슷한 부상을 입었다. 지난달 30일 DB전에서 무릎 인대가 파열되면서 전치 8주 진단을 받았다. 오카포 영입 후 상승세를 타고 있던 현대모비스로선 날벼락. 현대모비스는 대체 외국인 선수를 물색 중이다. 선두 경쟁 중인 KGC, DB, SK에 나란히 부상자가 발생했다. KGC와 DB는 24승14패로 공동 1위에 올라 있다. SK는 23승15패로 1경기 차 3위다. 부상이 선두 경쟁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현대모비스 역시 16승21패로 7위에 올라 6위 부산 KT(18승20패)를 1.5경기 차로 쫓고 있다. 6강 플레이오프 희망을 키우고 있던 상황에서 오카포의 안타까운 부상이 발생했다.

뉴스1

"류현진 · 김광현, 캠프서 주목할 선수"

MLB.com 지목

'코리아 빅리거' 류현진(33·토론토 블루제이스)과 김광현(32·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이 스프링캠프에서 주목해야 할 선수로 지목됐다.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 MLB.com은 4일(한국시간) 30개 구단의 스프링캠프를 소개하는 기사에 류현진과 김광현의 이름을 올렸다. 토론토의 페이지에서는 류현진과 함께 태너 로어크, 체이스 앤더슨, 야마구치 등 새로 영입한 선발투수들, 그리고 1루수 트래비스 쇼가 '알아야 할 선수'로 꼽혔다. 류현진의 이름이 가장 앞에 나온다. 류현진은 이번 겨울 토론토와 4년 총액 8000만달러라는 대형 FA 계약을 맺으며 팀의 에이스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세인트루이스 페이지에는 김광현의 이름을 찾을 수 있다. MLB.com은 "40인 로스터에 한국인 좌완 김광현이 가세했다"며 "김광현은 스프링캠프에서 선발 한 자리를 놓고 경쟁한다"고 설명했다. 김광현은 포스팅시스템을 통해 세인트루이스와 2년 800만달러에 계약했다. 인센티브를 포함하면 최대 1100만달러로 조건이 나쁘지 않다. 마이너리그 강등 거부권까지 계약에 포함시켰다. 류현진과 김광현은 나란히 미국으로 출국한 상태다. 류현진은 14일부터, 김광현은 12일부터 스프링캠프에 합류한다.

전북현대, '2010년대 ACL을 빛낸 최고의 팀' 후보 올라

10시즌 동안 ACL 우승 모두 9개 클럽...전북, 2016년 우승팀

3연패를 포함, 최근 11년의 시즌 동안 무려 7번이나 K리그1 정상에 오르면서 국내 무대를 평정한 전북현대가 한국을 넘어 아시아 최강 클럽 '인중'에 도전한다. 아시아 축구연맹(AFC)이 진행하고 있는 2010년대 최고의 팀 후보에 올랐다. AFC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10년간 아시아 최고 권위의 클럽대항전인 ACL에서 가장 뛰어난 퍼포먼스를 선보인

클럽을 팬투표로 가리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시즌 동안 ACL 우승트로피를 들어 올린 팀은 모두 9개 클럽. 중국의 빅클럽 광저우 에버그란데만이 이 기간 2회 우승(2013, 2015)에 성공했을 뿐 매 시즌 다른 팀이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절대 강자를 허락하지 않는 춘추 전국시대 느낌이다.

AFC는 모두 5개 팀을 2010년대 최강팀 후보로 선정했다. 언급한 광저우 에버그란데를 비롯해 알 힐랄(사우디아라비아), 알사드(카타르), 우라와 레드(일본) 그리고 K리그를 대표하는 전북이 이름을 올렸다. 전북은 지난 2016년 ACL 우승팀이다. 2006년 첫 우승 이후 10년 만에 되찾은 ACL 트로피였다. 2011년 결승까지 진출했으나 홈에서 알사드에 패해 아쉽게 준우승에 그친 것을 언급한 AFC는 2016년 상하이 상강(중국)과 K리그 라이벌 FC서울을 꺾고 결승에



올라 마지막 무대에서 알 아인(아랍에미리트)을 1, 2차전 합계 3-2로 꺾고 정상을 되찾은 내용을 소개했다. 2016년 이후로는 아직 정상에 오르지 못하고 있으나 AFC는 "언제나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히는 클럽"이라고 전북을 칭했다.

뉴스1